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향후 FTA 우선 추진 국가 검토

2008년 9월

통상연구실 신선영 연구위원

(02-6000-5395, cecilia@kita.net)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목 차

< 요약 > ---------- i

I.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및 평가 ---------- 1

II. FTA 우선 추진 대상국 선정시 고려 사항 ----- 3

III. FTA 우선 추진 대상국 선정 ---------- 5

1. 선정기준별 검토 ---------- 5

가. 시장규모 및 성장잠재력 ---------- 5

나. 관세수준 ---------- 7

다.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가능성 ---------- 8

라. 자원 및 에너지 보유 현황 ---------- 11

마. 상대국의 FTA 추진 현황 ---------- 15

2. 분석결과 ---------- 16

IV. 요약 및 결론 ---------- 17

< 요약 >

□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등과 FTA 협상을 타결, 발효시켰고, 2007년에는 **미국**과의 협상이 타결됨. **일본**(협상중단), **캐나다, 멕시코, 인도, EU, GCC** 등과는 협상이 진행 중이며, **Mercosur, 중국, 러시아, 페루, 호주·뉴질랜드** 등과는 협상 검토 중

ㅇ 우리 정부의 FTA 정책은, 주요국과의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하되, 대상국 선정기준은 **경제**적 타당성, **정치외교**적 함의, 우리와의 FTA에 **적극적**인 국가,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 추진에 도움이 되는 국가 등으로 함

□ 한편, 칠레, EFTA, ASEAN 등과의 FTA 체결로 인한 효과를 우리 기업들이 아직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고, 미국과의 FTA는 비준이, EU, 캐나다, 인도 등과는 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있으며, 중국 및 일본과의 FTA에 대해서도 산업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음

□ 이처럼 기체결된 FTA 효과가 크게 체감되지 못하는 가운데 구조조정 부담 등으로 인해 새로운 FTA에 대한 추진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되고는 있으나, FTA 추진은 **여전히 중요**한 통상정책 수단임

□ 따라서 FTA의 추진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산업에 대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으면서 수출효과가 극대화되는 국가와의 FTA를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음

ㅇ 이에 따라 이미 협상이 타결되었거나 타결이 임박한 경제권(EU)을 제외하고 **협상 진행중 또는 협상 개시를 고려중인 11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FTA 추진 우선순위를 검토함
- 협상 진행 중 : **캐나다, 인도, 멕시코, GCC, 일본**
- 협상 검토 중 : **중국, 러시아, Mercosur,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 향후 우선순위 검토에 있어 다음 **5가지 사항**을 고려해 보았음

(1) **시장규모 및 성장잠재력**

- FTA 체결의 수출증대 효과 극대화를 위해 현재의 시장규모가 크거나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들과의 FTA 추진이 유리
- 이에 따라 각 경제권의 GDP 규모, 인구, 수입규모 및 각각의 연평균 증가율 등을 분석한 결과, 중국, Mercosur, 러시아, GCC, 인도 등의 순

(2) **관세수준**

- FTA로 인한 교역확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평균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
- 이에 따라 각 경제권의 평균 관세율 수준 및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공산품 관세율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인도, 멕시코, Mercosur, 러시아, 중국의 순

(3)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가능성**

- FTA 체결로써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 한편 우리 산업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우리나라 및 각 경제권의 수출경합도(수출품목 구조의 유사성), 각 경제권의 우리나라 민감 농산물 수출 규모 등을 검토한 결과, GCC, 러시아, 뉴질랜드, 남아공, 호주의 순

(4) **자원·에너지 보유 현황**

- 자원보유국과의 FTA를 통해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들 국가의 구매력 증대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따라서 각국 에너지·광물자원 보유 현황, 우리나라의 수입 규모 등을 비교해 본 결과, 호주, 중국, 러시아, 캐나다, Mercosur의 순

(5) **상대국의 FTA 추진 현황**

- FTA 미체결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주요 경쟁국과 FTA를 기체결, 혹은 추진 중인 경제권과 FTA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
- 따라서 주요국의 FTA 체결 및 협상진행 상황을 고려한 결과, 멕시코, 남아공, 호주, GCC, 뉴질랜드의 순임

□ 5가지 사항을 종합 고려, 순위 도출시, **러시아, GCC, 호주, 인도, 중국, Mercosur, 멕시코** 등의 순임

< 5가지 고려사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

	시장규모 및 성장잠재력	관세수준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가능성	자원 · 에너지 보유현황	상대국 FTA 추진현황	종합순위
일본	7	10	7	11	9	11
중국	1	5	11	2	8	5
캐나다	8	8	10	4	6	9
인도	5	1	6	6	6	4
멕시코	9	2	8	8	1	6
GCC	4	7	1	7	4	2
러시아	3	4	2	3	9	1
Mercosur	2	3	9	5	9	6
호주	6	8	5	1	3	2
뉴질랜드	11	11	3	9	4	10
남아공	10	6	4	9	2	8

□ 이를 토대로 한 향후 우리의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1) **한미** FTA의 조기 **발효**, **한-EU** FTA 협상의 빠른 시일내 **타결**

(2) 진행 중인 **GCC, 인도, 멕시코** 등 개방의 부담이 비교적 작은 상대와의 **협상 조기 마무리**

(3) **러시아, 호주 (및 뉴질랜드), Mercosur** 등과의 FTA **조기 추진**

(4) **중국, 일본 등**의 경우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I.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및 평가

□ 추진 경과

o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FTA를 2004년 처음 발효시켰으며, 그 후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 전략으로 싱가포르, EFTA, ASEAN 등과 FTA 협상을 타결, 발효시켰음

- 2006년에는 세계 최대 선진국인 미국과 FTA 협상을 시작하여 14개월 만에 타결

- 지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소극적 동기)와 국가 전반의 시스템 선진화 및 경제 체질 강화(적극적 동기)를 위해 FTA를 적극 추진

< 2003년 9월 'FTA 추진 로드맵'을 제시 >

o 추진 원칙 : ① 전략적, 적극적 multi-track으로 추진,
②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포괄적 FTA 추진,
③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추진

o 체결 전략 : ① 주요 국가와의 동시다발적 FTA 체결을 기본으로 하되,
②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지향

o 대상국 선정 기준 : ① 경제적 타당성,
② 정치, 외교적 함의,
③ 한국과의 FTA에 적극적인 국가,
④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 추진에 도움이 되는 국가

<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

기체결	협상 중	검토 중
칠레 ('04.4.1 발효) 싱가포르 ('06.3.2 발효) EFTA ('06.9 발효)[1] ASEAN ('07.6 발효) 미국 ('07.4 타결)	일본 ('03.12 개시, '04.11 중단) 캐나다 ('05.7 개시) 멕시코 ('06.2 개시) 인도 ('06.3 개시) EU ('07.5 개시) GCC[3] ('08.7 개시)	Mercosur[2](공동연구 종료), 중국(공동연구 중), 러시아, 페루 호주・뉴질랜드

주 1)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 Mercosur(남미공동시장)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3) GCC(걸프협력이사회):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카타르

□ FTA 정책에 대한 평가

○ 전반적으로 FTA 추진 정책은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최근 들어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음

- 아직까지는 일부 기업들만이 FTA로 인한 효과를 누리고 있음

- 미국과의 FTA는 비준이, EU, 캐나다, 인도 등과는 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있으며, 중국 및 일본과의 FTA에 대해서도 산업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음

- 복잡한 관세율 및 원산지 기준 등으로 스파게티볼 현상 발생

○ 이처럼 FTA 효과가 크게 체감되지 못하는 가운데 구조조정 부담 등으로 인해 FTA 추진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DDA가 결렬되는 등 FTA 추진은 여전히 중요한 통상정책 수단이며, 세계 각국의 FTA 추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역시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여전히 강함

○ 따라서 변화된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고 우리나라 FTA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FTA 추진 대상국 선정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됨

- FTA에 따른 경제효과가 기업 및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체감될 때까지는 국내산업에 대한 충격이 큰 국가보다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으면서 수출효과가 극대화되는 국가와의 FTA를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이미 협상이 타결되었거나 타결이 임박한 경제권(EU)을 제외하고 협상 진행중 또는 협상 개시를 고려중인 11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FTA 추진 우선순위를 검토하고자 함

- 협상 진행 중 : 캐나다, 인도, 멕시코, GCC, 일본
  * 일본과의 협상은 중단 중
- 협상 검토 중 : 중국, 러시아, Mercosur,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Ⅱ. FTA 우선 추진 대상국 선정시 고려 사항

□ 향후 우선순위 검토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시장규모 및 성장잠재력**

- FTA 체결의 수출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현재의 시장규모가 크거나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는 것이 유리

- 이에 따라 각 경제권의 GDP 규모, 인구, 수입규모 및 각각의 연평균 증가율 등을 분석

○ **관세수준**

- FTA로 인한 교역확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평균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

- 이에 따라 각 경제권의 평균 관세율 수준과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공산품 관세율 수준을 비교 분석

○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가능성**

- FTA 체결로 수입이 증가하면 국내산업 구조조정이 수반되며 이에 따른 비용 및 사회적 저항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FTA를 원활히 추진할 수 없게 됨

- 따라서 FTA를 체결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 한편 우리 산업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FTA 추진대상 각 경제권과 우리나라의 수출품목을 비교하는 수출경합도(수출품목 구조의 유사성), 각 경제권의 우리나라 민감 농산물 수출 규모 등을 검토

○ **자원·에너지 보유 현황**

- 자원보유국과의 FTA를 통해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며,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들 국가의 구매력 증대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음. 따라서 FTA 상대국 선정에 있어서 자원보유 여부를 중요한 변수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검토 대상국의 에너지 및 광물자원 보유 현황, 우리나라의 에너지 및 광물자원 수입 규모 등을 비교

○ **상대국의 FTA 추진 현황**

- FTA 미체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 중국, EU, 미국 등과 FTA를 이미 맺고 있거나 체결을 추진 중인 나라와 서둘러 FTA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

- 따라서 주요국의 FTA 체결 및 협상진행 상황을 고려

Ⅲ. FTA 우선 추진 대상국 선정

1. 선정기준별 검토

가. 시장규모 및 성장잠재력

□ 현재의 시장규모를 볼 경우 GDP는 일본-중국-Mercosur 순으로 크며, 수입액은 중국-일본-캐나다 순, 개인 구매력 지표인 1인당 GDP는 캐나다-호주-일본 순임

□ 향후 성장잠재력을 보면, 지난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기준으로 Mercosur-중국-인도 등의 순이고, 수입증가율은 인도-러시아-중국 순, 1인당 GDP 증가율은 Mercosur-GCC-중국의 순

< FTA 추진대상국의 경제규모 >

	GDP(백만불)		1인당 GDP(불)		수입액(백만불)		인구 (천명)
		5년평균 성장률(%)		5년평균 증가율(%)		5년평균 증가율(%)	
일본	4,383,762	2.1	34,312	2.1	620,967	13.0	127,761
중국	3,250,827	10.6	2,461	10.0	955,845	26.5	1,321,052
캐나다	1,432,140	2.7	43,485	1.7	389,670	11.4	32,934
인도	1,098,945	8.6	978	6.9	216,682	30.8	1,123,967
멕시코	893,365	3.3	8,479	2.2	296,578	10.9	105,366
GCC	807,453	7.5	22,214	16.6	282,608	23.3	36,349
러시아	1,289,582	7.3	9,075	7.7	223,059	29.6	142,102
Mercosur	1,607,410	11.9	6,756	17.6	184,121	23.3	237,924
호주	908,826	3.3	43,312	2.0	165,331	17.9	20,983
뉴질랜드	128,141	3.1	30,256	2.7	30,890	15.5	4,235
남아공	282,630	4.7	5,906	3.7	90,990	25.5	47,851

* 자료 : IMF 및 WTO (수입규모는 WTO, 기타는 IMF), 2007년 기준

□ GDP, 수입액, 1인당 GDP 등 시장규모 지표의 순위로 현재 시장규모를 평가하고, 경제성장률, 1인당 GDP 증가율, 수입증가율 등으로 향후 성장잠재력을 평가한 후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

□ 따라서 시장규모 및 성장잠재력 지표로 분석시 FTA 우선 추진 대상국은 중국-Mercosur-러시아-GCC-인도 등의 순임

< 시장규모 및 성장잠재력에 따른 평가 결과 >

	현재 시장규모 순위	향후 성장잠재력*	최종순위
일본	1	15	7
중국	3	3	1
캐나다	2	16.5	8
인도	9	4.5	5
멕시코	6	13.5	9
GCC	6	6	4
러시아	4	6	3
Mercosur	6	1.5	2
호주	5	10.5	6
뉴질랜드	10	10.5	11
남아공	11	9	10

* 가중치 1.5 적용

나. 관세수준

□ 평균관세율은 인도-멕시코-러시아-Mercosur 순으로 높고, 뉴질랜드-호주-GCC-캐나다 순으로 낮음

□ 공산품 평균 관세율은 인도-멕시코-Mercosur-러시아 순으로 높고, 일본-뉴질랜드-캐나다-호주 순으로 낮음

□ 따라서 각국 평균 관세율 수준과 공산품 평균 관세율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와 FTA 체결 효과가 큰 경제권은 인도-멕시코-Mercosur-러시아-중국 순임

< FTA 추진대상국의 관세율 수준 >

	평균 관세율		공산품 관세율		최종순위*
		순위		순위	
일본	5.6	7	2.8	11	10
중국	9.9	5	9.0	5	5
캐나다	5.5	8	3.7	9	8
인도	19.2	1	16.4	1	1
멕시코	14.0	2	13.3	2	2
GCC	5.1	9	4.8	7	7
러시아	11.4	3	11.1	4	4
Mercosur	11.3	4	11.5	3	3
호주	3.5	10	3.9	8	8
뉴질랜드	3.0	11	3.2	10	11
남아공	8.0	6	7.9	6	6

* 자료 : WTO, 2006년 기준 (인도 및 러시아는 2005년 수치 적용)
* GCC 및 Mercosur의 경우 각 6개국 및 4개국 세율 단순평균함
* 최종순위 계산시 공산품 관세율에 가중치 2 적용

다.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가능성

□ 우리나라와 상대국의 수출상품 구조의 유사성을 의미하는 수출경합도를 비교해 볼 때, 우리와의 경합도가 가장 낮은 국가는 GCC-뉴질랜드-호주-러시아-남아공의 순이며, 경합도가 높은 국가는 일본-중국-멕시코-캐나다 순임

< 각국 수출경합도 지수 >

	수출경합도 지수	
		순위
일본	0.48	11
중국	0.39	10
캐나다	0.26	8
인도	0.25	6
멕시코	0.32	9
GCC	0.11	1
러시아	0.14	4
MERCOSUR	0.25	6
호주	0.13	3
뉴질랜드	0.12	2
남아공	0.22	5

* 자료 : ITC PC-TAS, 2006년 기준
* 수출경합도 낮은 순

□ 우리나라 농산물 중 대표적인 수입 민감 품목을 추출, 동 품목에 대한 상대국의 對세계 수출규모를 비교해 보면, 일본-러시아-GCC-남아공-멕시코 등은 적고, Mercosur-호주-캐나다-중국 등은 많게 나옴

ㅇ 우리 민감 품목의 추출기준은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 우리나라의 관세수준이 높은 품목, WTO 농산물 협상에서 관세화 예외를 요구했던 품목들 중 국내 자급률이 미미한 품목은 제외

ㅇ 동 기준에 따라 쌀, 보리, 감자, 쇠고기, 돼지고기, 마늘, 양파, 사과, 천연꿀 등 총 16개 품목 선정

< 우리나라 민감 품목의 각국별 수출규모 >

(단위: 천불)

품목	일본	중국	캐나다	인도	멕시코	GCC	러시아	MERCOSUR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쌀 (100620, 100630)	9,840	390,399	108,565	12,729	215	11,514	9,522	1,333	9,851	8,426	9,143
보리 (100300)	0	1,048	236,988	233	0	396	158,077	60,123	699,516	306	50
감자 (070190)	121	64,513	108,565	12,729	215	11,514	9,522	1,333	9,851	8,426	9,143
고구마 (071420)	592	6,679	0	106	233	7	0	1,520	45	279	288
귤 (080520)	3,189	116,406	61	3	1,581	389	486	75,016	21,190	1,052	60,058
사과 (080810)	48,966	372,561	38,647	6,924	161	2,820	2,032	151,194	9,355	0	160,107
복숭아 (080930)	3,133	5,591	168	0	859	95	0	10,978	14,745	254	8,797
포도 (080610)	2,573	19,234	1,649	66,308	109,203	3,617	205	191.863	87,724	535	257,604
천연꿀 (040900)	318	105,269	29,433	13,438	48,381	8,830	667	194,659	21,654	26,899	177
고추 (070960)	0	8,862	159,290	5,558	583,504	432	0	605	2,754	20,838	455
마늘 (070320)	854	800,751	303	4,259	13,798	495	62	93,665	220	741	273
양파 (070310)	13	153,747	34,887	257,113	222,813	4,333	53	41,257	16,686	52,228	8,314
돼지고기 (0203)	628	400,879	1,810,102	7,029	193,976	16	249	995,041	113,778	130	8,878
닭고기 (02071)	2,458	126,024	108,862	152	41	44,988	513	3,036,237	11,077	1,045	1,625
쇠고기 (0201, 0202)	5,593	64,158	1,104,777	368	132,059	8,581	534	5,594,353	3,665,099	48,718	41,469
분유 (040210, 040221, 040229)	3,382	52,785	29,068	75,339	23,403	191,360	7,497	678,270	781,872	2,059,316	9,356
총계/ 순위	81,660 1	2,688,906 8	3,665,889 9	1,943,695 6	1,331,247 5	285,060 3	184,867 2	11,482,135 11	5,619,690 10	2,220,923 7	575,055 4

* 자료 : ITC PC-TAS, 2006년 기준, ( )내는 HS Code

□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와 수출상품 구조의 유사성이 낮아 경합관계가 적고, 우리의 민감 농산품 수출규모가 비교적 작아, 국내 농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권으로는 GCC-러시아-뉴질랜드-남아공 등을 들 수 있음

<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가능성 검토 >

(단위: 백만불)

	수출경합도 지수	순위	민감농산품 수출규모	순위	최종순위
일본	0.48	11	82	1	7
중국	0.39	10	2,689	8	11
캐나다	0.26	8	3,666	9	10
인도	0.25	6	2,647	6	6
멕시코	0.32	9	1,331	5	8
GCC	0.11	1	285	3	1
러시아	0.14	4	185	2	2
MERCOSUR	0.25	6	11,482	11	9
호주	0.13	3	5,620	10	5
뉴질랜드	0.12	2	2,221	7	3
남아공	0.22	5	575	4	4

* 자료 : ITC PC-TAS, 2006년 기준
* 수출경합도 낮은 순, 민감 농산품 수출규모 낮은 순
* 수출경합도 지수 순위에 1.5 가중

라. 자원 및 에너지 보유 현황

□ 에너지 자원의 경우, 원유 및 천연액화가스(NGL),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등의 보유량 및 생산량을 기준으로 평가해 볼 때, 러시아, 중국, 캐나다, GCC, 호주 등의 순임

ㅇ GCC는 원유 및 천연액화가스의 보유량(전세계 매장량의 39.7%)과 생산량 모두 세계 1위, 천연가스의 보유량과 생산량 세계 2위임

ㅇ 러시아는 천연가스 보유량(세계 매장량의 27.1%) 및 생산량 세계 1위, 우라늄 생산량 세계 4위, 원유 및 천연액화가스 매장량 세계 5위 국가임

< FTA 추진대상국의 주요 에너지자원 보유량 및 생산량 >

	원유 및 천연액화가스(NGL)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보유량 (백만톤)	생산량 (백만톤)	보유량 (십억m3)	생산량 (십억m3)	보유량 (백만톤)	생산량 (천톤)	보유량 (천톤)	생산량 (톤)
일본	9	0.8	51	2.7	355	1,110	6.6	-
중국	2,212	180.8	2,350	48.0	114,500	2,190,000	38	750
캐나다	2,106	143,2	1,633	176.2	6,578	67,500	345.2	11,629
인도	786	36.3	1,101	30.4	56,498	428,430	42.6	230
멕시코	1,847	187.1	412	39.2	1,211	11,800	1.3	-
GCC	63,398	871.8	41,059	204.1	-	-	-	-
러시아	10,027	470.2	47,820	640.6	157,010	299,300	131.7	3,431
Mercosur	1,591	123,2	745	56.8	7,492	6,290	164.8	110
호주	225	23.3	755	38.9	76,600	378,830	747.0	9,519
뉴질랜드	7	1.1	30	3.9	571	5,266	-	-
남아공	3	1.1	10	1.9	48,000	244,986	255.6	674

* 자료 : World Energy Council's Survey of Energy Resources 2007, 2005년말 기준
* 원유 및 천연액화가스, 천연가스 순위에 각각 1.5를 가중하여 순위 도출

□ 한편 이들 경제권의 주요 에너지자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규모를 보면 호주, GCC, 러시아, 중국, 뉴질랜드 등의 순임

ㅇ GCC는 우리나라의 원유, LPG, 천연가스 품목 제1위 수입국이고, 러시아는 우라늄 수입 1위, 원유와 석탄 수입 각각 5위이며, 호주는 석탄 수입 1위, 원유, LPG, 우라늄 수입의 각각 4위, 중국은 석탄 수입 2위 차지

< FTA 추진대상국의 주요 에너지자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 규모 >

(천불, MTI 3단위)

	원유 및 LPG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일본	3,175	-	18,523	-
중국	290,966	-	1,614,866	-
캐나다	-	-	608,379	31,398
인도	25,577	-	648	-
멕시코	-	-	-	-
GCC	41,582,222	7,087,423	-	-
러시아	2,705,485	-	472,609	137,615
Mercosur	81,133	-	-	-
호주	3,000,115	122,831	2,245,633	45,625
뉴질랜드	107,839	-	-	-
남아공	-	-	21,374	-

* 자료 : KITA.net, 2007년 기준
* 원유 및 천연액화가스, 천연가스 순위에 각각 1.5를 가중하여 순위 도출

□ 광물자원은 철광석, 구리, 보크사이트, 니켈, 아연 등 주요 광물자원의 보유량 및 생산량 기준으로 평가해 볼 때, 각각의 자원을 고르게 갖고 있는 호주, 중국, 러시아, Mercosur, 캐나다 등의 순임

ㅇ 호주는 구리를 제외한 모든 주요 산업 광물자원 보유량과 생산량이, 중국은 니켈 보유량을 제외한 주요자원 보유량 및 생산량이 고르게 세계 5위 안에 위치함

ㅇ 러시아는 철광석 보유량 및 니켈 생산량 세계 최대 국가이며, Mercosur는 철광석 세계 생산량 2위, 알루미늄의 주원료인 보크사이트 세계 생산량 3위 지역임

< FTA 추진대상국의 주요 광물자원 보유량 및 생산량 >

	철광석 (백만톤)		구리 (천톤)		보크사이트* (천톤)		니켈 (톤)		아연 (천톤)	
	보유량*	생산량*	보유량	생산량	보유량	생산량	보유량	생산량	보유량	생산량
일본	-	-	-	-	-	-	-	-	-	-
중국	7,000	600	26,000	920	700,000	32,000	1,100,000	80,000	33,000	2,800
캐나다	1,100	33	9,000	585	-	-	4,900,000	258,000	5,000	680
인도	4,200	160	-	-	770,000	13,000	-	-	-	-
멕시코	400	12	30,000	400	-	-	-	-	7,000	480
GCC	-	-	-	-	-	-	-	-	-	-
러시아	14,000	110	20,000	730	200,000	6,000	6,600,000	322,000	-	-
Mercosur	8,900	360	-	-	1,900,000	24,000	4,500,000	75,300	-	-
호주	10,000	320	24,000	860	5,800,000	64,000	24,000,000	180,000	42,000	1,400
뉴질랜드	-	-	-	-	-	-	-	-	-	-
남아공	650	40	-	-	-	-	3,700,000	42,000	-	-

* 자료 : U.S. Geological Survey, Mineral Commodity Summaries, January 2008, 2007년 기준
* 철광석 보유량은 철광석 Iron content Reserves 기준
* 중국의 철광석 생산량은 crude ore 기준, 기타국 철 생산량은 usable ore 기준
* 보크사이트는 알루미늄의 주원료로 일반적으로 4톤의 보크사이트에서 1톤의 알루미늄 제조

□ 이들 경제권의 주요 광물자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규모를 보면, 호주, Mercosur, 캐나다, 인도, 멕시코 등의 순임

ㅇ 호주는 우리나라의 철광, 알루미늄광 수입 1위, 아연광 수입 2위, 동광(구리) 수입 3위국으로 니켈을 제외한 주요 광물자원 수입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국가임

ㅇ 캐나다는 철광, 동광, 아연광 등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은 알루미늄광(39.5%, 2위)의 수입에 있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한편, Mercosur는 철광(27.5%, 2위) 및 동광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음

< FTA 추진대상국의 주요 광물자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 규모 >

(천불, MTI 3단위)

	철광	동광	알루미늄광	니켈	아연광
일본	55	-	-	-	-
중국	4,049	5	7,108	-	9
캐나다	8,627	80,751	-	-	36,143
인도	128,188	-	-	-	61,097
멕시코	-	13,208	-	-	83,405
GCC	-	-	-	-	-
러시아	-	-	-	-	-
Mercosur	786,288	379,142	-	-	-
호주	1,712,699	343,703	10,901	-	404,957
뉴질랜드	-	-	-	-	-
남아공	167,999	-	-	-	-

* 수입액 : KITA.net, 2007년 기준

□ 종합하여 볼 때, 주요 에너지 및 광물자원 보유·생산량, 우리나라의 수입량을 지표로 FTA 추진 대상 경제권을 비교할 경우, 호주, 중국, 러시아, 캐나다, Mercosur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에너지자원 및 광물자원 보유에 따른 평가결과 >

	에너지자원 보유·생산량 순위		광물자원 보유·생산량 순위		최종순위
		우리나라의 수입액 순위		우리나라의 수입액 순위	
일본	11	9	9	8	11
중국	2	4	2	6	2
캐나다	3	7	5	3	4
인도	6	7	6	4	6
멕시코	8	11	7	5	8
GCC	4	2	9	9	7
러시아	1	3	3	9	3
Mercosur	7	6	4	2	5
호주	5	1	1	1	1
뉴질랜드	10	5	9	9	9
남아공	9	10	8	6	9

마. 상대국의 FTA 추진 현황

□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은 전세계적 공산품 수출국인 일본, 중국, EU, 미국 등이라 할 수 있으므로, 검토 대상 11개 경제권이 이들 경제권과 FTA를 체결했거나 추진 중인 여부를 비교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쟁국과의 FTA 체결 현황을 검토한 결과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멕시코, 남아공, 호주, GCC, 뉴질랜드 순으로 FTA 체결이 시급하다 할 수 있음

< FTA 추진 대상국의 우리나라 4대 경합 경제권과의 FTA 추진 현황 >

	기체결	협상중	최종순위
일본	-	-	9
중국	-	EU	8
캐나다	미국	-	6
인도	-	일본, EU	6
멕시코	미국, EU, 일본	-	1
GCC	-	EU, 중국, 일본	4
러시아	-	-	9
Mercosur	-	-	9
호주	미국	중국, 일본	3
뉴질랜드	중국	미국	4
남아공	EU, 미국	중국	2

* 4개 경제권과의 기체결 및 협상중인 FTA만 고려
* 이미 체결한 국가 수에 가중치 2, 현재 협상 중인 국가 수에 가중치 1 적용

2. 분석결과

□ 앞서 살펴본 시장규모 및 성장잠재력, 관세수준,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가능성, 자원·에너지 보유 현황, 상대국의 FTA 추진 현황 등 5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위를 매겨보면,

ㅇ 러시아, GCC, 호주, 인도, 중국, Mercosur, 멕시코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5가지 고려사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

	시장규모 및 성장잠재력	관세수준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가능성	자원 · 에너지 보유현황	상대국 FTA 추진현황	종합순위
일본	7	10	7	11	9	11
중국	1	5	11	2	8	5
캐나다	8	8	10	4	6	9
인도	5	1	6	6	6	4
멕시코	9	2	8	8	1	6
GCC	4	7	1	7	4	2
러시아	3	4	2	3	9	1
Mercosur	2	3	9	5	9	6
호주	6	8	5	1	3	2
뉴질랜드	11	11	3	9	4	10
남아공	10	6	4	9	2	8

Ⅳ. 요약 및 결론

□ **시장규모 및 성장잠재력, 관세수준,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가능성, 자원·에너지 보유 현황, 상대국의 FTA 추진현황** 등 5가지 사항에 따른 분석결과, **러시아, GCC, 호주, 인도, 중국, Mercosur, 멕시코** 등과는 조기에 FTA를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우선순위가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남

□ FTA 협상 진행상황, 추진에 따른 국내적 부담, 상대국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1) **한미** FTA를 조기에 **발효**하고, **한-EU FTA** 협상을 빠른 시일내 **타결**

(2) 현재 진행 중인 **GCC, 인도, 멕시코** 등 개방의 부담이 비교적 작은 상대와의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3) **러시아, 호주 (및 뉴질랜드), Mercosur** 등과의 FTA를 조기에 **추진**
- 러시아와는 산관학 연구 종료 및 러시아의 WTO 가입 즉시 우선적으로 추진
- 호주와는 연내 협상이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 뉴질랜드는 우선순위는 낮은 편이나 호주와 협상을 시작할 경우 같이 진행하는 것이 행정비용 절감 등 차원에서 효율적임
- Mercosur 등과는 가급적 조기에 협상 개시

(4) **중국**은 우선순위는 중간 수준이나,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관학 연구결과를 토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본**과의 FTA도 협상재개 시점과 관련,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음